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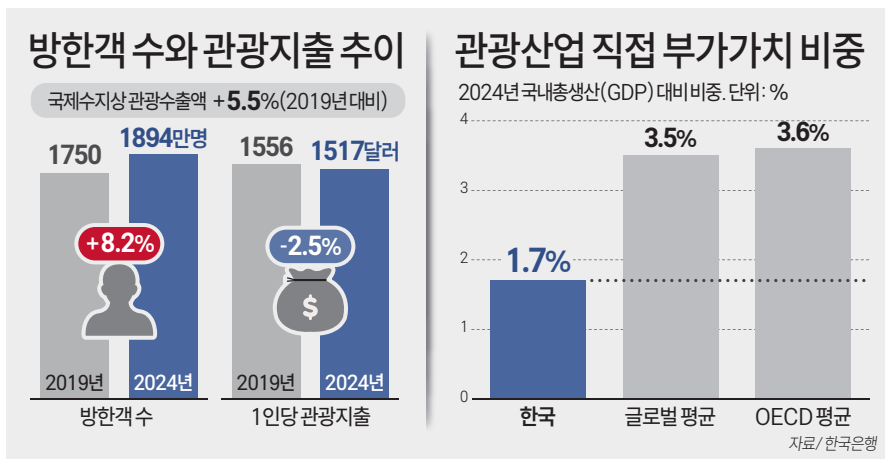
방한객 1900만명 시대… “체류·지출 늘려 관광산업 키워야”

한은, 서비스수출 관점 관광산업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역대최대’ 1인당 지출 2019년 대비 2.5% ↓
 日 수준으로 관광수출 높이면
 부가가치 추가 창출 6.3조 추정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89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1인당 관광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방문객 숫자뿐 아니라 체류기간과 하루 지출액, 고부가가치 서비스 소비를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객은 1894만명으로 종전 최고였던 2019년의 175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관광지출은 2.5% 감소했고 국제수지상 관광수출액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광객 수의 양적 회복이 지출과 체



류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관광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도 주요국보다 작았다. 2024년 한국 관광산업의 직접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1.7%로 글로벌 평균 3.5%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을 밑돌았다.

관광수출은 경제성장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01~2025년 GDP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039%포인트(p)였고, 방한

수요가 회복된 2022~2025년에는 0.147%p로 높아졌다. 전체 효과의 약 60%는 숙박·음식·운송 등 관광산업에서 직접 발생하고 40%는 연관 산업으로 퍼졌다.

다만 최근 수치에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구조적 경쟁력 개선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한국의 GDP 대비 관광수출 비율을 2025년 일본 수준인 1.46%까지 높이

는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한국은 1.17%에서 0.29%p 높아져야 한다. 관광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5억6000만달러, 25.4% 늘어나면 국내에서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44억달러, 약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의 0.235%다. 일본 수치는 정책 목표나 전망이 아닌 효과 분석을 위한 예시적 기준이다.

한 가지 변수만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방한객을 481만명 늘려 2375만명으로 만들거나 하루 평균지출을 177.8달러에서 223달러로 높여야 한다. 평균 체류기간만 늘린다면 6.5일에서 8.2일로 1.7일 연장해야 한다.

여러 변수를 함께 개선하면 부담은 줄어든다. 체류기간을 6.5일로 유지해도 방한객을 226만명 늘린 2120만명으로 끌어올리고 하루 평균지출을 21.3달러 높인 199.1달러로 만들면 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같은 관광수출액이라도 소비처에 따라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달라졌다. 의료와 스포츠·오락, 개인서비스 등 고부가가

치 산업의 지출비중을 17.2%에서 35%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추가 부가가치 유발액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관광수출액이 별도로 1.7% 더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다.

한은 연구진은 의료·미용·웰니스와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 공연·전시, 프리미엄 음식·숙박 등 지출단가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에 집중된 관광 동선을 지역 연계·야간 관광과 장기체류 프로그램으로 넓히고, 정책 성과지표도 방한객수에서 관광수출액과 체류기간, 1인·1일 지출, 국내 부가가치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연구진은 “관광정책의 성과는 방한객수 확대 자체보다 관광수출의 물량과 단가를 함께 높이고 관광지출의 국내 부가가치 전환 정도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ISA 개편, 연금저축 활용 최적조합 만들어야

내년 생산적금융·청년형 ISA 출시
 기존 ISA 혜택 축소, 해외투자 가능
 해외상품 단기투자, 기존 ISA가 유리
 국내 투자시 생산적·청년형 ISA 활용

주식·펀드 등 재테크에 활용 가능한 절세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선택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생산적금융ISA’ 및 ‘청년형ISA’의 출시를 준비한다. 두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ISA 계좌의 해지 없이도 생산적ISA 및 청년형ISA에 가입할 수 있다.

◆ 세제혜택은 확대… ‘해외투자’ 금지

증권사가 판매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펀드, 지수추종펀드(ETF) 등 투자상품을 한 곳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입 기간 내 순이익을 종합해 만기 시 과세해 운용에 유리하며, 이자·배당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최대 400만원(우대형 기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초과 이익에도 9.9%의 상대적으로 낮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15세 이상 근로자·19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생산적ISA’는 기존 ISA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만기 시 이자·배당 수익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없앴고, 총 납입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렸다. 기존 ISA과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내 기존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연간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이월도 가능하다.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형ISA’는 생산적ISA보다 혜택을 강화했다. 생산적ISA에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에 더해, 납입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단, 생산적ISA와 청년형ISA는 모두 국내주식·펀드 등 국내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기존 ISA에서 ETF 등을 통해 가능했던 해외 투자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품 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기존 ISA ‘혜택 축소’

생산적ISA와 청년형ISA 모두 기존 ISA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 ISA 계좌를 운용했던 투자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생산적ISA와 청년형ISA의 출시에 맞춰 기존 ISA 계좌의 한도 이월을 금지해서다.

기존 ISA 계좌는 매년 2000만원씩 부여되는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납입 기간이 5년인 만큼,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최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목돈 운용이 가능했다. 투자자들은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고 목돈이 모이면 단기간에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절세창구’로 활용했다. 한도 이월이 금지되면 투자 전략 변경도 불가피하다.

납입 종료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진 것 또한 투자자에 불리하다. 기존 ISA 계좌는 최소 3년, 최대 5년의 납입기간을 부여했는데, 납입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 납입은 불가하나 투자상품 운용은 가능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중·장기 수익을 목표로 배당 성향이 높은 중저위험 상품에 투자했는데,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이같은 운용도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ISA 계좌의 개편 이유를 “국민의 중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기존 ISA 통장 대비 혜택이 큰 생산적ISA와 청년형ISA는 국내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한 만큼, 기존 ISA를 활용했던 투자자의 선택폭은 좁아졌다.

◆ ‘연금저축’ 등 대체상품

생산적ISA와 청년형ISA의 출시 및 기존 ISA의 혜택 축소로 투자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투자전략 변경도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투자성향에 따라 ‘연금저축’ 등 대체상품을 고려한 ‘최적의 조합’을 마련하라고 제안한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펀드·ETF 등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을 공제하며, 기존 ISA처럼 해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최소 가입기간인 3년 유지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한 ISA와 달리 55세 이전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원금의 입·출금은 가능하다.

해외상품의 단기 투자 시에는 기존 ISA 계좌를, 해외상품의 중장기 투자 시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상품 투자 시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생산적ISA 및 청년형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절세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금융, 포용금융 책임자에 이승열 선임

청년·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올해 이행목표 3.1조, 상반기 60% 집행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 추진을 총괄할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포용금융을 그룹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하고 관계사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나금융은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4대 중심 축으로 정했다. 올해 포용금융 이행 목표는 3조1000억원으로, 상반기에 이미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집행했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전세자금대출을 신

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전세사기 보장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을 특별 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무담보·무보증 대출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과일러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금리대출과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3280억 ‘역대최대’

전년비 24%, 2분기 순익 12% 증가
 영업수익 5.5%, 비이자수익 4.8% ↑

카카오뱅크가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인 328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대출 비교·지급결제·투자 등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자와 비이자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5일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순이익은 140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

상반기 영업수익은 1조6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대출을 통한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4.8% 늘었으며,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

로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했다.

대출 비교와 투자, 지급결제 등 플랫폼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에서 실행된 대출액은 1조5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박스와 펀드 합산 판매 잔고는 2분기 말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분기 말 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18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2340억원에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조687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84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여신 순증액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했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 중저신용 대출 5200억원을 신규 취급해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을 공급했다.

/나유리 기자